

청원포울(가제) : 빅데이터 국민청원 프로젝트

2018.07.24.

이경택.

1. 기존 시스템의 특징

- 1) 현재 국민청원은 최신 순과 추천 순에 따라 청원을 정리하고 있어 추천수에 따라 청원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.



- 2) 특정 청원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는 등 편향성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.
- 3) 국민청원이 아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, 법률상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청원을 하려면 반드시 국회의원/지방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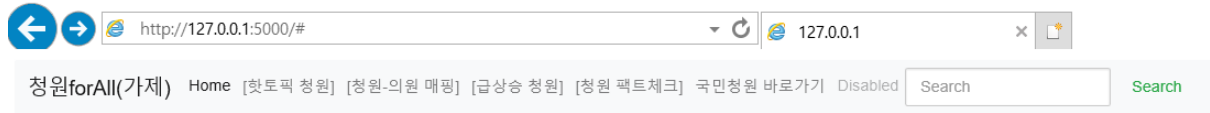
해도 무방할 정도로 무게감없고 취지에도 맞지 않는 청원들이 연이어 올라오는 상태이다. 이에 국민정서는 국민청원을 남용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. 심지어 챔피언스리그에서 실책한 외국 축구팀 선수를 방출이나 사형시켜달라는 청원 [#2018러시아월드컵에서 경기력 부진으로 실책을 저질렀던 장현수를 사형시키라](#)는 청원 [#장현수사형](#)까지 나와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도 볼 수 있다.
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국회에서 입법 요구나 법 개정 청원을 받는 자체적으로 청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국회 청원은 이미 존재하지만 법률상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청원을 하려면 반드시 [국회의원/지방의원의 소개](#)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.(청원법 문서 참조. 그래도 [한국](#)에서는 [의원 내각제](#)의 성격도 일부 있어서 정부도 법안 제출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.

- 4) 청원 추천 인원수가 조작되기 쉬워 특정 청원이 지지를 받는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.
- 5) 허위사실이 확산되고 사건이 왜곡되기 쉽다.

2. 빅데이터 국민청원 프로젝트의 목표

크게 4가지 기능을 구현하고자 한다.



1) [핫토픽 청원] :

1-1)을 고려하여, 최신 뉴스를 크롤링하여 얻어낸 키워드에 부합하는 청원을 카테고리 별로 보여주는 기능.

단지 추천순과 최신순에 기준을 두고 청원을 보는 기존의 방식보다 손쉽게 여론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, 부적절한 청원의 난립에 대한 필터 작용을 할 수 있다.

2) [청원-의원 매핑] :

1-2)와 1-3)을 고려하여 특정 청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, 특정 청원에 우호적일 수 있는 의원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이를 통해 국민 여론의 반영이 국민 청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.

의원에 대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청원을 이용하여 가공한다.



2018년 7월 24일 현재 제20대 국회 청원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제안대수
제20대(2016-2020)
소관위원회
소관위원회전체(17)

청원명

☐ 결과 내재검색

청원번호	청원명	청원인	소개의원	접수일	회부일	소관위원회	의결일자	의결결과
2000117	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...	전인숙외...	박주민의원	2017-11-21	2017-11-21	환경노동위...	2018-02-27	본회의불...
2000093	생리대안전성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...	박인숙외...	이정미의원	2017-09-15	2017-09-18	환경노동위...	2018-02-27	본회의불...
2000076	초중등교육법 교감 자격기준 개정	조은주외...	유성엽의원...	2017-04-05	2017-04-05	교육문화체...	2017-09-28	본회의불...
2000057	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, 학...	유윤중	박주민의원	2017-01-05	2017-01-05	교육문화체...	2017-09-28	본회의불...

3) [급상승 청원] :

1-4)를 고려하여, 짧은 시간(기간) 동안 급격하게 추천을 받은 청원의 키워드를 각종 포털에 검색하여 추천이 급상승한 기간 동안의 뉴스를 크롤링하여 급상승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을 만한 사건이나 키워드를 분석하여 보여준다.

4) [청원 팩트체크] :

1-5)를 고려하여, 청원의 키워드를 포함한 최신 뉴스들과의 내용 유사도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.

— 청원진행중 —

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.

참여인원 : [108,450명]

<위, 국민청원/ 아래, naver뉴스-머니투데이 뉴스 본문>

경찰청이 가장 먼저 내놓은 여경 확대 정책은 2019년도 경찰대학·간부후보생 성별 구분모집 폐지다. 이 담당관은 "남녀 통합모집을 하면 여경 비율은 최대 30% 안팎일 것"이라고 전망했다. 실제로 여경 비율이 가장 높은 영국이 29.1%다.

경찰청은 2022년까지 여경을 전체 15%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. 이 때문에 '체력이 약한 여경을 늘리면 치안이 불안해질 것'이라는 지적도 나왔다. 이 담당관은 이 같은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.

"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.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.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,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.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."

위 예시를 들면, 2022까지 여경 15%, 50대 남성 경찰 그만두어야,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는지를 보여주거나 내용이 얼마나 중복되는지를 벤 다이어그램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내어 시각화할 수 있다면 청원의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.

1) Input?

미정.. 개인의 관심 토픽에 대한 정보를 input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.

2) Output?

[핫토픽 청원] : 최근 뉴스의 키워드에 부합하는 청원글의 제목, 본문 일부, 키워드, 국민 청원 링크

[청원-의원 매핑] : 청원에 대해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정보, 의원 사무실 정보, 관련 의안 정보

[급상승 청원] : 청원의 추천수가 급상승한 시점, 그 때의 뉴스의 사건과 키워드, 관련 링크

[청원 팩트체크] : 청원글과 관련 뉴스 간의 정보 일치 여부를 벤 다이어그램 등의 형식으로 비교

3) 활용할 데이터

국민청원 추천수, 국민청원 글 본문, 국민청원 청원 기간

의안정보시스템의 청원과 의원 정보.

각종 포털의 뉴스 검색 결과.